

특별취재

격포해변 검은 해수유입관 눈살

해변가 모래 유실 심화로 관광부안 이미지 해쳐... 백사장 복구 필요

부안군의회 박병래의원 “부안군 청렴도 3등급”



부안 군의회 278회 제2차 정례회 군정질문에서 박병래(부안읍·행안·사민) 의원은 김중규 군수는 취임하자마자 부안군의 청렴도 1등급 달성을 군정 최우선 과제로 천명했음에도 허투루 그쳐 도내 최하위로 전락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특히 박의원은 공직자가 가장 우선적으로 갖춰야 할 덕목은 청렴이라며 지난 해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청렴도 조사결과 부안군이 10점 만점 중 7.61점으로 3등급을 받았으며 도내 군 단위 공무원들의 청렴도 지수는 순창 완주 고창 진안군 등이 2등급으로 부안군보다 훨씬 높다고 강조했다.

박의원은 또 그 원인이 무엇 때문이며 부안군의 이미지와 부연드거를 공무원의 잘못 등으로 훼손시킨것은 누구의 책임이며 도의적인 책임감을 느낀다며 공직을 천직으로 알고 맡은바 책임을 열심히 공직생활을 하고 있는 대다수의 공무원의 위상을 어떻게 하나고 물었다. /부안=이옥수 기자

이승복 김제시부시장

시 방역초소 현장점검

이승복 김제시부시장은 24일 금구면에서 발생한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확산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거점소독시설 및 이동통제초소와 사료원적장 등 6개소를 방문하여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근무자를 격려했다.

이 부시장은 방역상황을 방문하여 근무자를 격려하고 또한 소독시설 등방역초소 6곳을 방문하여 소독시설 상황을 점검하고 추운날씨에 고생하는 현장 근무자를 격려하기 위해 간식을 제공하고 근무여건 등을 확인했다.

이 부시장은 방역초소 관계자들에게 현재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가 추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두가 한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김제=곽태 기자

김제시 농공단지 정비 경제활성화

김제시는 산업인프라 정비를 통한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농어촌지역 복합산업단지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농공단지 정비사업을 2011년~2016년에 걸쳐 총사업비 48억원(국비12)을 투입하여 대대적인 정비를 실시했다. 2018년까지 6억원(국비12)을 투입하여 지속적인 정비사업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농공단지 정비 사업은 조성된지 15년이 경과된 황산농공단지(1987년 준공 7만3천㎡), 서흥농공단지(1990년 준공 27만7천㎡), 민경농공단지(1991년 준공 21만5천㎡, 봉황농공단지(1992년 준공 23만3천㎡), 월촌농공단지(1993년 준공 14만5천㎡)와 대동농공단지(2006년 준공 33만1천㎡)가 대상이다. /김제=곽태 기자

김제시 개별공시지가 조사 착수

김제시는 국세 및 지방세와 각종 부담금등의 산정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2017년도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2017년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를 11월 21일부터 2017년 2월 10일까지 조사대상 토지 25만3천여필지를 건축물대장 등 각종 공부조사와 자가현황 도면 및 현장조사로 정확한 토지특성을 조사한다.

이후 토지가격 비준표를 적용하여 산정한 지가에 대해 감정평가사의 검증 거쳐 2017년 4월13일부터 5월2일까지 토지소유주 및 이해관계인에게 자가열람하고 의견 제출사항은 자가신청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김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로 인근지가와의 균형을 유지하는 등 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 한다고 밝혔다. /김제=곽태 기자

전해의 사계절 관광지로 전국의 관광객과 탐방객들이 줄을 잇고 있는 격포해수욕장에 인근 횡단보도가 설치해 놓은 해수유입관이 어지럽게 얽혀져 있어 관광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격포 주민과 상인들에 따르면 “격포 해수욕장은 대천해수욕장·만리포해수욕장과 더불어 서해안의 3대 해수욕장으로 손꼽히고 각종 먹거리와 볼거리, 즐길 거리들이 즐비하며 국내 레저업계 1위인 대명리조트 및 각종 대형 숙박업소들이 자리 잡고 있어 매우 격포할 일대를 등산과 생선회를 먹으며 찾고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격포해수욕장이 새만금방조제 축조 및 자연 침식 등에 따른 조수 흐름 변화에 따라 백사장의 모래

가 심각하게 유실되면서 검은 해수유입관이 그대로 노출되면서 관광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어 관광부안의 이미지가 크게 훼손되고 있다며 관계당국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더욱이 백사장의 경우 모래 유실이 심각해, 검은 해수유입관, 자갈, 폐콘크리트, 돌 등이 광범위 하게 널려져 있어 격포 비닷가를 찾는 관광객들의 안전에도 무방비 하다는 것이다.

반산반도 국립공원에 따르면 “격포 해변 모래 유실이 심화 되면서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해수유입관, 자갈, 폐 콘크리트, 돌 노출로 인해 관광객 중 일부가 자살(절망), 열상(베임), 찰과상 등의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며 빠른 관리 방안과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격포 주민과 상인들은 “빠른 시일 내에 관리청은 격포해변 해수유입관 실태조사를 통해 노출해수관 정비와 모래 유실의 원인을 과학적으로 조사해 유실된 모래를 보충, 백사장의 복구와 복원에 힘써 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의 불편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한편 반산반도 국립공원에서 2016년 격포해변 노출해수관에 대해 해수관 매몰 3회, 절단 7회, 차광막 설치 등으로 임시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대책은 될 수 없다며 모래 유실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모래 보충 및 복원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정읍시보건소가 이달 15일부터 29일까지 주 2회 3주간 ‘생활 터로 찾아가는 고혈압·당뇨교실 운영’을 운영한다. 보건소는 ‘민성질환자들의 건강관리와 올바른 지식전달을 위해 고혈압·당뇨교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읍시보건소, ‘생활 터로 찾아가는 고혈압·당뇨교실 운영’ 호응

29일까지 주 2회 교육

정읍시보건소가 이달 15일부터 29일까지 주 2회 3주간 ‘생활 터로 찾아가는 고혈압·당뇨 교실(이하 고혈압·당뇨교실)’을 운영한다.

보건소는 “최근 생활습관 변화와 노인 인구 증가로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질환이 날로 늘어나고 있어 이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는 만성질환자들의 건강관리와 올바른 지식전달을 위해 고혈압·당뇨교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소 방문이 쉽지 않은 고혈압과 당뇨 환자를 위해 접근성이 편리하고 지역주민들의 주요 생활 터인 10개소(시기현대@, 삼화그린@, 시영연립1차 부영1차@, 하신 신진, 연지동서부 영창@, 음성 목련@) 경로당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만성질환자들의 자가 관리 능력을 높이고 있는 것이다.

보건소는 특히 기존 주입식 교육이 아닌 참여형 교육으로 교육의 효과를 높이고 있다. 교육내용도 혈압과 혈당 측정 및 고

혈압·당뇨질환 바로 알기 교육, 전문가와 함께하는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운동 안내 그리고 스트레스 해소를 통한 민성 질환 극복하기 등으로 다양하다.

보건소 관계자는 “고혈압과 당뇨와 같은 만성질환에 대한 적절한 관리를 통해 심근경색과 뇌졸중과 같은 합병증과 사망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읍=김태환 기자

금구면 사회단체협, 김제사랑장학재단에 장학금 3백만원 기탁

음식부스 운영수익금 보태

김제사랑장학재단(이사장 이진식)은 24일 금구면 사회단체협의회가 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더 나은 교육환경이 만들어 졌으면 하는 희망을 가지고 김제사랑장학재단에 장학금 3백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금구면 사회단체협의회(새마을부녀회 발전협의회, 이장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는 금구면민의 날, 어르신회 한마당잔치 개최, 관내 경로당 및 복지시설에 백미 나누어 주기, 겨울철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랑의 김장 담그기 행사등을 통해 지역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금구면 사회단체협의회가 함께 장학금을 기탁하게 된 계기는 지난 지방선출제에서 음식부스를 운영했던 새마을부녀회(회장 나옥남)가 수익금 1백만원을 기탁한다고 하니 발전협의회(회장 장종성), 이장협의회(회장 전성수),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이정곤)에서 동참의사를 밝혀서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진식 김제사랑장학재단 이사장

“어르신, 맛있는 김장 담가 마음 따뜻한 겨울 보내세요”

교월동 새마을부녀회 관내 경로당에 김장재료 전달

김제시 교월동 새마을부녀회(회장 이영이)는 24일 관내 36개 경로당에 천연염료 고추장 등 김장재료를 전달하였다.

이번 김장재료 전달은 절기상 소설을 지나 김장을 담기에 적기를 맞아 경로당에서 생활하시는 어르신들에게 마음별로 맛있는 김장을 담가 마음이

따뜻한 겨울을 나실 수 있도록 해드리기 위해 준비되었으며, 이를 위해서 부녀회원들은 각 마을별로 지난해로부터 공병과 헌옷을 수집하여 김장재료를 구입하는 비용을 마련하였다.

이영이 부녀회장은 “지난 여름부터 열심히 함께해준 회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우리 지역의 어르신들이 따뜻하고 즐거운 겨울을 나시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태환 교월동장은 “새마을부녀회는 우리 교월동에서 없어서는 안될 소금과 같다”며 “먼저 나보다는 우리를 먼저 생각해 주시는 회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김제=곽태 기자

부안경찰서 실종아동 발견 위한 ‘코드아담’ 점검

부안경찰서(서장 강현신)는 코드아담(실종예방지침) 운영협의회를 지난 23일 행안면 스포츠파크에서 생활안전과장 여성청소년계장,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등 총 5명이 참석해 현장 점검을 가졌다.

‘코드아담’은 다중이용시설에서 미아가 발생했을 경우 현장에서 곧바로 실행하는 실종 아동 수색 프로그램으로, 1981년 미국 유명 방송인이었던 존 윌시의 아들 아담 윌시가 실종된 후 살해된 채 발견된 사건이 계기가 되면서 1994년 미국에서 시행되었고, 우리 나라는 2014년 도입해 일정 규모의 시설에서 ‘코드 아담’을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날 운영협의회는 부안에서 ‘코드

아담’을 시행하고 있는 시설(스포츠파크)을 점검하고, 소속 직원 교육 훈련 여부 점검을 통해 ‘코드아담’ 등 실종 예방 방안이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였고, 스포츠파크는 미아 발생신고 접수 즉시 안내방송 및 경보를 발령하고 출입구를 봉쇄해 집중적으로 실종 아동 등을 수색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강현신 경찰서장은 “부안에서 제 2의 아담 윌시와 같은 실종아동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코드 아담’ 시행 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할 예정이며, 혹시 주변에서 방황하는 아이를 보면 112에 즉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정읍시 정우면 ‘신태인축구장’ 준공

국제규격·유소년 축구장 갖춰

정읍시 정우면 대시리 878번지 일원(신태인체육관 앞) 2만6천여㎡의 부지에 축구장이 조성됐다.

지난 2011년부터 총사업비 27억4천여만원(국비 4억8천, 도비 1억6천, 시비 21억)을 들여 건립된 신태인축구장은 국제 규격(105m×68m)으로, 유소년(75m×48m) 경기장을 비롯 관탈석과 주차장, 화장실 등의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24일 열린 준공식에는 김생기 시장과 유진섭 시의회의장을 비롯한 내외귀빈과 축구동호회원 지역주민들이 대거 참석해 축구장 준공을 축하했다.

국민체육기금(전액 국비) 6억원을 들여 신태인체육관의 지붕구조를 보강과 교체, 외부의 노후 마감재 교체, 외부 도색 등의 준비를 마쳤고 현재는 국비 6천만원과 시비 1억4천만원 등 모두 2억원을 들여 광장 배수로와 주차장 조성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정읍=김태환 기자



(사)한국문인협회 제36차 전국 대표자대회가 지난 23일과 24일 이틀에 걸쳐 정읍시 예술회관에서 성대하게 열렸다.

한국문인협회 대표자대회

정읍시 예술회관에서 300여명 참가 성료

(사)한국문인협회 제36차 전국 대표자대회가 지난 23일과 24일 이틀에 걸쳐 정읍시 예술회관에서 성대하게 열렸다.

17개 지역 168지부 한국문인협회 회원 300여명이 참가한 이번 행사에는 김생기 시장을 비롯한 안도 한국문인협회 전북지회장, 장성열 정읍교육지원청 교육장, 오오근 한국예총정읍지회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첫날은 정읍시 시립극단의 화려한 식전공연에 이는 개회식과 제2회 전영택문학상 시상, 우수지부 시상과 문화지 콘서트 시상이 진행됐다.

전영택 문학상은 전북 출신 시인 김용옥씨, 아동 문학가 김영훈씨, 시인 김완성씨가 수상했고, 제2회 문화지 콘서트에서는 최우수상은 수원문학, 우수상은 강서문학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 부산지회와 경기 안행지부가 올해 우수지회로 선정됐다. 둘째 날은 시티투어로 진행돼, 참여자들은 정읍시 문화관광해설

사와 함께 내장산국립공원과 동학농민혁명기념관, 피향정, 김동수 가옥 등 정읍지역 역사와 문화유적, 관광자원을 둘러봤다. 김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전국의 문인들에게 우리 정읍의 문화와 관광자원을 알림으로서 문화예술과 관광의 고장 정읍의 이미지를 높였다”고 밝혔다.

행사에서 김생기 시장은 “봄의 꽃, 여름의 신희, 가을의 단풍 겨울의 설경으로 사계절 내내 아름다운 정읍을 찾아주시는 것을 환영한다”며 “전국의 문인협회 대표자 여러분께 좋은 문학의 단상(斷想)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사)한국문인협회 문호씨 이사장은 대회사에서 “정읍은 사람의 밤새, 뱀의 밤새, 피의 밤새가 서려있는 고장”이라고 소개하고 “정읍에서의 이번 행사가 우리나라 대표 문학단체인 한국문인협회라 문화의 질적 향상과 발전을 이끌어 가는데 획기적인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읍=김태환 기자